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살아서도 죽어서도 수행자답게

세속화된 장례문화, 승가에도 만연
생가 복원 · 기념관이 고승 만드는가

인도에는 상여문화가 없다. 죽은 사람을 옷(사리)으로 말아 장대에 끼워 둘이나 넷이 어깨에 메고 화장터로 간다. 티베트에서는 죽은 사람을 자루에 넣어 소 등에 태워 사찰부근의 천장터로 향한다. 천장터에서 자루 속의 시체는 작두칼에 육신이 나뉘어져 독수리의 먹이가 되는 것이다.

몽골에서는 죽은 사람을 마차에 싣고 달리다 시체가 떨어진 곳에 봉분 없이 평장을 한다. 말과 소, 염소들에게 평장한 곳에서 자라난 풀을 보시하는 의미이다.

중국의 운남성에는 바위절벽에 시체를 둬 바람과 새들에 의해 두개골만 남기게 하는 장례풍습의 소수민족도 있다.

네팔에서는 인도처럼 화장 문화가 앞서가고 있으나 강 주변의 주민들은 시체를 강물 깊은 곳에 수장해 물고기에게 육체를 보시하는 곳이 많다.

인도의 타르사막같은 곳에서는 화장할 나무도 강물도 없어 죽은 사람을 사막의 공동묘지에 옷 입은 그대로 버려두고 떠난다. 시체를 처리하는 생쥐 떼들이 시체의 옷 속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을 케멀사파리 중에 누구나 보게 된다.

바라나시의 강가에서는 새벽시간에 어린 아이의 시체를 긴 천에 담아 엄마아빠가 앞 뒤 에서 들고 와 강가에서 간단한 의식을 치룬 후 발가벗긴 죽은 아이를 강물로 던진다. 팔뚝만한 고기떼들이 아기시체에 몰려드는 것을 지켜보면서. 몽골의 일부 지방에서는 죽은 시체를 집 앞의 큰 나무에 올려놓아 새와 짐승 낮과 밤의 자연의 변화에 맡기는 곳이 있다.

장자(莊子)의 임종이 가까웠을 때 제자와 나눈 대화다. 제자들은 스승의 장례준비로 분주한 모습을 보이며 석관(石棺)과 옥관(玉棺)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에 장자가 누운 자세로 제자들을 불러 물었다.

"그대들은 웬일로 그리 분주하느냐?" 제자 중 한 명이 대답했다. "위대하신 스승님이 돌아가시면 장례를 후하게 지내는 것이 저희들의 도리라고 생각해 소홀함이 없도록 챙기고 있을 따름입니다."

장자는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하늘과 땅으로 나의 관(棺)을 삼을 것이며 해와 달로써 무덤의 석등(石燈)을 삼을 것이다. 또한 하늘의 무수한 별로써 상여의 장식을 이룰 것이며 만물은 있는 그대로 제물(祭物)이 마련됨과 다름없으니 한 가지도 부족할게 없다. 이미 내가 내 스스로 장례의 도구를 완비하고 있는데 무엇이 부족해 여기에 더한단 말인가?"

제자가 말했다. "스승님의 말씀은 관도 없이 그냥 하늘과 땅의 기운에 스승님의 몸을 맡겨두라는 말씀이온데 그리하면 독수리나 솔개 까마귀들이 스승님의 몸에 생체기를 낼까 두려워 석관과 옥관을 이미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장자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나의 죽은 몸을 옥관에 넣고 옥관을 석관에 넣어 독수리나 솔개를 피해 땅속 깊이 묻는다고 치자, 그럴 경우 땅 밑에서 개미나 구더기 등이 죽은 시체를 먹이삼아 득실거릴 터인데 이쪽의 먹이를 저쪽의 먹이로 주려하느냐?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현상계에 집착한 모습이 안쓰럽구나."

자, 한국 불교계의 고승들은 살아서도 개운한 자유인의 모습에서 흔들리더니 죽어서는 세속화된 장례문화가 뱀의 허물처럼 개운치 못한 모습으로 긴 그림자를 남기고 있다.

조의금 접수대가 등급별로 마련되어 있고 3일 장례는 찾기 어렵고 5일 장례가 대세이다. 꽃상여는 상식이요 유교문화인 만장행렬은 필수이다. 살아생전에 진리와 한 몸 이루지 못한 것이 부끄러워 49재는 생략해야할 터인데 이 절(寺) 저 절(寺)로 일주일 간격으로 옮겨 다니며 분주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사라져야할 세태이다.

한 인물의 바른 평가는 사후(死後) 최소한 한 세기는 지나야할 터인데도 고승의 생가(生家)복원에 기념관 짓는 모습이 진정한 고승(高僧)의 뜻인지 묻고 싶다. 살아서도 죽어서도 수행자답길, 살피고 또 살필 일이다.

무착(無着)과 문수보살



지안 스님의 〈禪話의 향기〉
조계종 고시위원장

옛날의 고승들은 특정 보살을 친견하기를 서원하여 수행을 했다는 이야기가 많이 전해진다.

우리나라 신라 때 자장 율사가 문수보살을 친견하였다하며, 의상 대사는 관음보살을 친견하였다 한다. 이는 모두 〈삼국유사〉에 기록된 이야기다. 지극한 신심의 정성에 의한 감응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다.

선화(禪話)에서도 보살친견의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특히 문수보살과 나눈 대화가 많다.

무착문희(無着文喜:821~900) 선사는 위앙종 스님으로 앙산혜적(仰山慧寂)의 제자였다. 어려서 출가하여 비구가 된 후 〈사분율〉을 배우고 제방을 편력하다 당 무종의 불교말살을 획책한 회창폐불사태(會昌廢佛沙汰)를 만나 한때 일시적으로 환속하여 살다 다시 절에 들어와 제방의 선지식을 찾아 다녔다. 그러던 중 그러던 중 홍주 관음원에 이르러 앙산을 만나 법을 묻고 깨달음을 얻어 그의 법을 이었다.

무착 선사가 오대산을 찾아가 문수보살을 친견하였다는 이야기는 널리 알려진 설화다.

〈선문염송설화〉에는 무착 선사가 문수보살과 나눈 대화가 네 칙(則)으로 소개되어 있다. 1436칙에 나오는 대화다. 무착 선사가 문수 보살을 친견하고 〈화엄경〉 '보살주처품'에 나오는 문수 보살의 주처(住處)로 알려진 오대산에 이르렀을 때 한 노인으로 화현한 문수 보살을 만났다.

문수 보살이 무착 선사에게 물었다.

"어디서 오는가?" "남방에서 옵니다."

"남방의 불법이 어떻게 유지되는가?"

"말법의 비구가 계율을 지키는 이가 적습니다."

"대중들은 얼마나 되는가?"

"혹 3백, 홀 5백이 되기도 합니다."

무착 선사가 되물었다.

"여기는 어떻게 지내십니까?"

"범부와 성인이 같이 살고, 용과 뱀이 섞여 지내네."

"대중들은 얼마나 됩니까?" "앞도 삼삼(三三) 뒤도 삼삼(三三)이라네."

이 말이 후에 전삼삼 후삼삼(前三三 後三三)이란 공안(公案)이 널리 알려졌다.

이 이야기에 이어 다음 1437칙에서는 또 이런 대화가 전개된다. 문수보살이 유리잔을 들어 무착 선사에게 물었다.

"남방에도 이런 것이 있는가?"

"없습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무엇으로 차를 마시는가?"

무착 선사가 대답을 하지 않고 해가 져서 자자고 하니 문수보살이 말했다.

"그대는 집착하는 마음이 있으니, 여기서 잘 수 없다."

"나는 집착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대는 계를 받은 지 얼마나 되었는가?" "20년입니다."

문수 보살이 말했다.

"집착하는 마음이 없다는 말을 몹시 좋아하는 구나."

그리고 균제동자를 시켜 내쫓으라고 하였다. 무착 선사가 동자에게 물었다.

"아까 화상께서 '앞도 삼삼, 뒤도 삼삼이라 했는데 그게 얼마인가?" 동자가 말했다.

"대덕이시여." 무착 선사가 고개를 돌리자 동자가 물었다.

"그게 얼마입니까?" 그러자 무착 선사가 보니 조화로 된 절에 편액(篇額)이 없어 동자에게 물었다. "이 절 이름이 무엇인가?" 동자가 손으로 금강(金剛)신장의 등 뒤를 가리키면서 말하였다. "보십시오." 무착 선사가 고개를 돌려보니 조화로 된 절도 자취를 감추었다.

1438칙 1439칙에도 목환자(木槵子:염주)이야기와 문수(文殊)이야기가 이어져 나온다. 무착 선사가 오대산에 갔다가 어느 날 행랑(廊下)에서 한 노인을 만났는데 노인이 물었다.

"대덕은 어디서 왔소?" "남방에서 왔습니다." "거기에는 목환자 염주가 나온다고 하는데 가지고 오셨소?" "좋은 것은 없고 거친 것 하나 있습니다." "내게 좀 보여 주겠소?"

그리하여 무착 선사가 목환자를 주었더니 노인은 이내 사라져 보이지 않았다. 또 한 번 한 노인을 만나 무착이 물었다. "문수가 아니십니까?" "어찌 두 문수가 있으리오."

절을 하였더니 홀연히 사라져 보이지 않았다. 〈능엄경〉에 나오는 문수보살이 문수보살일 뿐 제2문수가 없다는 말과 같다. 무착 선사가 문수보살을 만났다? 이것도 '무착봉문수(無着逢文殊)'라는 공안이 되었다.

보리심, 중생을 즐겁게 하는 원인



시인 도정 스님이 풀어쓴 〈대장부론〉 시즌2
②보리심을 가져야 할 이유

欲與一切眾生無量大樂當發菩提之心。何以故。菩提心者。是一切眾生樂因。一切諸色不離四大。一切樂事不離菩提心。怪哉。云何 ⿰不畏生死之苦乃畏無畏菩提之心。若欲止息一切眾生苦者。無過發菩提之心。發菩提心者是初止息因。初止息得無上止息。得財寶利不如得功德利。得功德利不如得智慧利。得智慧利不如得菩提心利。若放逸廢忘不念菩提心者。如禽獸無異。汝今云何不發悲心。當知悲心者名為菩提大菩提。欲趣向佛智應發菩提之心。為結使所障者不能發解脫之心。為業報障者不能發菩提之心。云何邪趣。云何正趣。為有愛所牽以四空為解脫者名為邪趣。發菩提心修八正道名為正趣。為得富報者修行於施。為得樂報者修行悲心。為欲救濟安樂為生者當堅發菩提之心。不修福者有三事難得。一者不得親近善友。二者不能悲心厭離。三者不能敬 ⿰佛慧。未發菩提心者應當發心。若發菩提心者得一切種智。

번역 | 일체의 중생에게 한량없는 즐거움을 주려 한다면 응당 보리심을 발할지니, 왜냐하면, 보리심이란 일체중생을 즐겁게 하는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일체의 모든 색(色)이 사대(四大)를 떠날 수 없고, 일체의 즐거운 일도 보리심을 떠날 수 없습니다. 이상한 것은 어찌하여 그대는 생사의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없음(無)과 보리심은 두려워합니까. 만약 일체 중생의 고통을 멈추려 하거든 발보리심보다 뛰어난 건 없습니다. 발보리심은 처음 원인을 그치게 하며, 처음 그쳐서 위없는 그침을 얻습니다. 재물을 얻는 이익이 공덕을 얻는 이익만 못하고, 공덕을 얻는 이익이 지혜를 얻는 이익만 못하며, 지혜 얻는 이익이 보리심 얻는 이익만 못하나니, 만약 제멋대로하고 포기하면 보리심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지금 어찌 자비심을 발하지 않는가요. 응당 알 것은 자비심이 곧 대보리입니다. 부처님의 지혜에 나아가고자 하면 응당 보리심을 발할지니, 묶여서 장애로우면 해탈의 마음을 발할 수 없고, 업보의 장애로도 보리심을 발할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 삿된 데 나아간다고 하며, 무엇으로 바른 데 나아간다고 합니까. 애착에 이끌리며 사공(四空)으로써 해탈이라 하는 이를 삿된 데 나아간다고 하며, 발보리심으로 팔정도를 닦는 이를 바른 데 나아간다고 합니다. 부유한 과보를 얻고자 하면 보시를 수행하고, 즐거운 과보를 얻고자 하면 자비심을 수행해야 하며, 중생을 구재하여 안락하게 하고자 하는 이는 응당 발보리심을 굳건히 합니다. 복을 닦지 않고는 삼사(三事)를 얻기 어렵나니, 첫째, 자비심으로 버리지 못하며, 셋째 부처님의 지혜를 우러러 공경하지 못합니다. 보리심을 발하지 못한 이는 응당 발심할지니, 만약 보리심을 말한 이는 일체의 종지를 얻게 됩니다.

해설 | 무색계(無色界)의 네 곳을 사공처(四空處)라 하고, 무색계의 네 곳 하늘세계를 사공천(四空天)이라 하며, 이 무색계인 현상을 여읜 세계관을 선정으로 삼는 수행을 사공정(四空定)이라 한다. 그런데, 현상의 세계를 벗어나기를 바라며 이것을 해탈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실제로는 애착심에 사로잡혀 있다면 어떻겠는가. 남들에게는 보시를 설파하면서 뒷구멍으로 재물욕심 채우기에 급급하다면 어떻겠는가. 불교지식은 있을지라도 중생을 구제하는 부처님의 지혜와 해탈을 기대하기는 요원한 일이다. 염불은 돈벌이 수단이 되고, 경전은 속임수의 삿된 지식일 것이다. 입으로는 〈금강경〉의 무상(無相)을 말할지라도 속으로는 무상함을 두려워하고, 보시를 말할지라도 발보리심을 두려워 할 게 뻔하다.

제 96기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개 강 일 : 2017년 7월 31일 오후 5시
◆ 강의일시 : 매주 (월, 목) 오후 5시 ~ 6시 30분 (90분 강좌)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0496

최신형 대출력 앰프로 보상 교환설치 실시!!

단 160만원 만 준비하시면, 현재의 앰프설비를
300만원대 고급음향 설비로 교체 해 드립니다

※ 설치 희망일 3~4 일 전에 예약 바랍니다. (종래 사용하던 앰프, 스피커는 보상, 회수해 옵니다!)

고출력 파워드 믹싱 앰프



USB탑제 최신형 800 왓트

◈ 선착순 예약 주문하시는 사찰 10곳에 한해 무선 마이크 및 CD기(65만 상당)를 무료 보시합니다.

추가 설치 및 보시 품목

① 대출력 800 왓트 파워드 믹싱 앰프 (자체 USB탑제)	1대
② 입력 450W 대출력 용 스피커	1조
③ 무선 마이크	1대 (무료보시)
④ 최고급 CD기(5개 연속 사용)	1대 (무료보시)

무선마이크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CC 플레이어 (연속 5개 사용)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